

母音調和 一考察

李 時 震

〈목 차〉

- | | |
|---------|--------|
| 1. 서 론 | 3. 본 론 |
| 2. 음운체계 | 4. 결 론 |

1. 서 론

1.1. 본 연구는 한 방언권 내에 있는 두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지역어에 나타나는 모음조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 “일반적으로 모음조화는 알타이제어의 어느 한 시기의 어느 한 방언에서 낱말 혹은 어간과 접미사 사이에서 공존할 수 있는 모음에 제한이 있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어에서는 모음체계의 변동으로 그 흔적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모음조화 현상이 없어진 것도 있다.”(김방한: 1989). 알타이제어 중 하나의 언어로 한국어를 가정하고²⁾ 알타이제어와 한국어의 친근관계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들고 있는 음운현상 중에서 모음조화가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중세국어의 모음 중에서 ‘·’가 변화를 보임에 따라 형태소 내부에서부터 모음조화 현상이 파괴되기 시작했다. 한편 형태소 경계에서의 모음조화는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 어간과 파생어미와의 결합에

1) 본고에서 말하는 모음조화란 현대국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사형어미 ‘아’의 교체에 한해서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2) 한국어의 계통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의 견해가 있어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람스테트와 포페가 한국어와 알타이제어와의 친근관계를 강조한 것에 근거해서 잠정적으로 한국어를 알타이제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서 나타나는 것과 용언의 어간과 부사형어미 ‘아’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현대국어에서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용언의 어간과 부사형어미 ‘아’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에 한정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2. 지금까지 모음조화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15세기를 전후한 ‘·’의 변화에 따른 모음체계의 재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모음조화의 실제 및 변모과정의 기술이다. 다른 하나는 현대 한국어 중에서 지역어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음조화에 대한 기술이다. 후자의 기술은 주로 제음운현상을 기술하는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그래서 본고는 자연히 후자의 방향으로 접근되는데, 동남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부사형어미 ‘아’의 교체에 관하여 기술한 글로는 이병선(1971), 최명옥(1976, 1980, 1982) 등이 있다. 그러나 동남방언권 내에 있는 두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음조화의 비교연구는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런데 서남방언을³⁾ 대상으로 모음조화 현상에 의한 비교연구는 소강춘(1988a)에서 시도된 바 있다.

1.3. 모음조화를 논의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화자질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이다. 세계의 제언어에서 보이는 모음조화의 자질 중에서 우리 나라에 잘 알려진 것으로는 전설모음: 후설모음이라는 구개적 조화, 고모음: 저모음이라는 수평적 조화 그리고 사선적 조화가 있다. 예를 들어 알타이제어의 공통된 현상으로 모음조화를 논의하면서 터어키어를 들고 있다. 터어키어에서는 [back]과 [round]라는 두 자질이 독립적으로

3) 대단위 방언권에 속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남북도의 방언을 통칭하는 것으로 한다. 물론 이러한 방언구획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작용하기 때문에 두 개의 변이가 요구된다. 즉 구개적 조화와 수평적 조화가 함께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근래에 나온 [ATR]=(Advanced-tongue root) 자질을 박종희(1985)에서 사용했다.⁴⁾

한편 모음조화 현상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것이 잘 지켜진 시기로 중세국어 이전의 어느 시기를 막연히 추정하고 있다. 또한 모음조화 현상은 중세국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오면서 한편으로는 소위 모음조화에 대한 예외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중세국어의 모음조화를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쓰여진 舌縮 자질을 가지고 현재 두 지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 나타나는 부사형어미 ‘아’의 교체에 적용시키려고 한다.⁵⁾ 그 방법은 두 지역어의 어간말 환경에서 실현되는 7개의 모음 중에서 6개의 모음을 대상으로 舌縮 자질을 이용하여 그것들이 부사형어미 ‘아’의 교체에서 어떤 조화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두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으면 그것도 보고자 한다.

1.4. 조사지점으로 선정된 곳은 전형적인 반촌지역으로서 안동군 풍산읍 상·하리동과 월성군 양좌동 마을이며, 조사항목으로는 용언어간 약 400항목과 그것에 연결되는 어미 7항목을 선정했다. 또한 자료의 제보자는 Chambers & Trudgill(1980)의 NORMs에 따랐다.⁶⁾

2. 음운체계

부사형어미 ‘아’의 교체에 필요한 단모음에 관하여 살펴보자. 먼저 안동

4) Stewart(1967)가 Akan어를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 Ladefoged의 그림의 인용을 통해 tongue root에 관심을 가진 것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김주원(1988)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5) 중세국어의 모음조화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舌縮 자질을 이용한 학자로는 김완진(1978, 1985), 김주원(1988) 등을 들 수 있다.

6) 조사지점의 내력 및 제보자 명단은 참고(1991a) 참조.

지역어에 나타나는 단모음은 /E, ɪ, ə, i, u, o, a/의 7모음체계이다. 부연하면 안동지역어는 /e/와 /ɛ/가 중화된 상태인 /E/로 나타난다. 거기에 비해서 월성지역어에 나타나는 단모음은 /E, ɔ, i, u, o, a/의 6모음체계이다. 다시 말해서 월성지역어는 /e/와 /ɛ/가 중화되어 /E/로, /ə/와 /ɪ/가 중화되어 /ɔ/로 나타난다. 한편 모음조화와는 연관이 없지만 두 지역어에서 순수자음 중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s/와 /s'/의 경우이다. 안동지역어는 /s/와 /s'/가 변별기능을 갖지만, 월성지역어는 그렇지 못하다.

3. 본 론

부사형어미 ‘아’의 교체에 있어서 사용되는 자질 舌縮은「훈민정음 해례 제자해」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舌縮而聲深。一舌小縮而聲不深不淺。| 舌不縮而聲淺。二與· 同而口蹙。| 與· 同而口張。三與一一同而口蹙。· | 與一一同而口張。”

한편 본고에서는 舌縮의 개념을 김주원(1988)에서 언급한 것을 받아들인다. 김주원(1988)은 “舌縮은 혀가 움추려드는 소리인데 혀가 움추려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혀뿌리 전체가 뒤로 움추려지는(舌根後縮)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상의 것을 바탕으로 두 지역어에 나타나는 부사형어미 ‘아’의 교체를 어간 말의 음운환경 및 어간음절수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7)

7) 논문 기술의 편의상 안동지역어는 (가)지역어로, 양동지역어는 (나)지역어로 표기한다. 그런데 (나)지역어를 월성지역어라 칭하지 않는 이유는 음운체계를 제외한 제음운현상 면에서 다른 월성지역어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을 밝힌다. 특히 전형적인 반촌지역어이면서 주변의 언어제현상과는 다른 점에 유의하여 사회언어학적인 접근을 시도해볼 만한 곳이기도 하다.

3.1. 어간말 모음이 /a/인 경우

	(가) 지역어	(나) 지역어	
(1) a.	magado	magɔdo	‘막아도’
	tadado	tadɔdo	‘달아도’
	narado	narɔdo	‘날아도’
	k'amado	k'amɔdo	‘감아도’
	ancado	ancɔdo	‘앉아도’
	p'arado	p'arɔdo	‘뺨아도’
	kamado	kamɔdo	‘감아도’
	nacado	nacɔdo	‘낮아도’
	nak'ado	nak'ɔdo	‘남아도’
	k'ak'ado	k'ak'ɔdo	‘깍아도’
b.	kado	kado	‘가아도’
	cado	cado	‘자아도’
	c ^h ado	c ^h ado	‘차아도’
	t ^h ado	t ^h ado	‘타아도’
	heedo	heedo	‘하아도’
c.	kak'awə(wa)do	kecabɔ(ba)do	‘가깝아도’
d.	kegawado	kegabɔ(ba)do	‘가뻘어도’

(1. a~1. b)는 어간이 1음절로 이루어진 것이다. (1.a)는 어간말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가)지역어에서는 어간모음 /a/가 어미 /a/를 취하기 때문에 舌縮音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본다. 거기에 비해서 (나)지역어에서는 어간모음 /a/가 어미 /ɔ/를 취하므로 舌小縮音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어간모음 /a/가 부사형어미 ‘아’의 교체에 의하여 /a/ 혹은 /ɔ/를 선정하게 된다. 부연하면 (가)지역어에서는 어간모음 /a/가 舌縮音으로 기능하므로 부사형어미로 舌縮音 /a/를 취하고 (나)지역어에서는 어간모음 /a/가 舌小縮音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舌小縮音 /ɔ/를 취한다.

(1. b)는 어간말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두 지역어 모두 어간모음 /a/가 어미 /a/를 취하므로 舌縮音으로 기능한다. 어간모음 /a/

와 어미모음 /a/가 결합하면서 동음삭제가 일어나 음성형에는 단모음으로 실현된다. 여기에서 동음삭제란 형태소 경계에서 어간말모음 /a/ 혹은 /a/ 뒤에서 부사형어미 /a/ 혹은 /a/가 삭제되는 것을 말한다.⁸⁾ 왜냐하면 국어에서 어간이 어미보다 기능 부담량(functional load)이 큰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약 어간모음 /a/가 舌小縮音으로 기능한다고 가정하면, 모음순행동화 규칙에 의하여 음성형이 장모음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것은 두 지역어에서 실현되는 음성형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한편 (1. b)의 여사 중에서 ‘짜아도’는 (가) 지역어에서는 어간모음이 /c'a-/이고 (나) 지역어에서는 어간모음이 /c'ap-/이므로 각각 음성형 [c'ado]와 [c'abɔdo]로 실현된다. 또한 ‘하아도’는 어간의 기저형을 ‘ha-’로 설정하여 음성형 [hEEdo]를 도출해 낼 수도 있다.⁹⁾ 그러나 본고에서는 줄고(1991a)에서 취하고 있는 연구방법으로 다루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기저형 설정 및 음성형 도출과정에서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연히 기저형 재구조화를 이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하아도’의 경우에 있어서 부사형어미 ‘아’와 결합할 때는 어간의 기저형을 /hEE-/로 설정한다. 이러한 /hEE-/가 舌縮音인 /a/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완전순행동화에 의해서 음성형 [hEEdo]가 실현된다. 만약 어간의 기저형으로 /hE-/를 설정한다면 음성형은 [hEdo]가 실현된다. 왜냐하면 비어두음절에서 어미모음 /a/는 완전순행동화하여도 장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1. c~1. d)는 2음절 이상 어간으로서 표준어는 각각 /kak'ap-/ , /kapjɔp-/에 해당된다. (1. c)인 경우 (가)지역어에서는 ‘ㅂ-변칙’으로

8) 최명옥(1982)은 동음삭제란 어미 ‘아’앞에서 어간말모음 ‘ㄹ’와 ‘아’가 삭제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그 이유로 어미 ‘아’는 어간모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큰 것이기 때문으로 본다.

9) 이러한 설명방법을 취한 학자로는 김잔우(1968), 김영기(1973) 등이 있으며, 최명옥(1980)은 이러한 해결방법은 부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활용하면서 어간모음 /a/가 舌縮 자질을 지닌 /a/와 舌小縮 자질을 지닌 /a/를 혼용해서 취하고 있다. 이것은 1음절 어간에서 잘 유지되던 어미 /a/가 2음절이상으로 오면서 약간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2음절이상 어간에서 화자에 따라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기 시작한다. (나) 지역어에서는 ‘ㅁ-정칙’으로 활용하면서 어간말모음 /a/가 화자에 따라 수의적으로 舌縮音으로 혹은 舌小縮音으로 기능함을 볼 수 있다.

(1. d)인 경우 (가) 지역어에서는 어간모음 /a/가 ‘ㅁ-변칙’으로 활용하면서 舌縮 자질을 지닌 어미 /a/를 취하고 (나)지역어에서는 ‘ㅁ-정칙’으로 활용하면서 수의적으로 어미 /a/혹은 /a/를 취하고 있다.

결국, (1)에서 (가) 지역어는 어간이 1음절인 경우 어간모음은 /a/가 舌縮音으로 기능하면서 /a/를 취하고, 2음절 이상인 경우는 어간모음 /a/가 어미 /a/와 /a/를 수의적으로 취하고 있다. (나) 지역어는 어간이 1음절인 경우 어간말음절의 구조에 따라 어간모음의 기능이 달리 실현된다. 2음절 이상인 경우 어간모음의 기능이 달리 실현됨에 따라 어미 /a/와 /ɐ/가 수의적인 교체를 보인다.

3.2. 어간말 모음이 /o/인 경우

	(가) 지역어	(나) 지역어	
(2) a.	nop ^h ado	nop ^h ɐdo	‘높아도’
	c’oc ^h ado	c’oc ^h ɐdo	‘꽃아도’
	p’ok’ado	p’ok’ɐdo	‘뽕아도’
	nogado	nogɐdo	‘녹아도’
	s’ogado	sogɐdo	‘속아도’
b.	c’obado	c’obɐdo	‘좁아도’
	p’obado	p’obɐdo	‘뽕아도’
c.	kowado	ko:bɐdo	‘곱아도’
d.	towado	towado	‘뚝아도’
e.	coado	coado	‘종아도’
	na:do	na:do	‘놓아도’

f.	wado	wado	‘오아도’
	pa:do	pa:do	‘보아도’
g.	s'a:do	s'a:(o:)do	‘쏘아도’
	k'a:do	k'a:(o:)do	‘꼬아도’

(2)는 어간이 1음절로 이루어진 것이다. (2. a)는 어간말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속아도’에 해당되는 어사는 (가) 지역어에서는 /s'ok-/이고 (나) 지역어에서는 /sok-/이다. 즉 음운체계에서 언급했듯이 두 지역어에서 차이를 보이는 /s/와 /s'/의 변별적 기능에 관한 문제이다. (2. b)는 ‘ㅁ-정칙’에 관한 어사인데 ‘좁아도’에 해당되는 어사는 두 지역어 모두 어간이 /c'op-/이다. (2. c)의 어사는 (가) 지역어는 ‘ㅁ-변칙’이고 (나) 지역어는 ‘ㅁ-정칙’이다. 이상 (2. a~2. c)에서 (가) 지역어는 어간모음 /a/가 설측음으로 기능하여 어미 /a/를 취하는 반면에 (나) 지역어는 어간모음 /a/가 설소측음으로 기능하여 어미 /ɔ/를 취한다.

(2. d)는 두 지역어에서 모두 ‘ㅁ-변칙’으로 음성형이 실현된다. 그런데 두 지역어에서 어간모음 /a/가 모두 설측음으로 기능한다. 특히 (나) 지역어에서 어미 /a/를 취하는 이유는 어간의 기저형을 /tou-/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2. e)는 어간말음절이 /h/로 끝나는 경우인데, (2. e)의 어사 중에서 음성형 [na:do]의 도출과정을 보기로 하자.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어간모음 /a/의 자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어사의 어간은 /noh-/인데¹⁰⁾이 때에는 두 지역어에서 어간모음 /o/가 설측음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설측자질을 지닌 어미 /a/와 결합하면서 어간말음절 후음 /h/는 모음 사이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noato/가 된다. 그리고 활음형성이 일어나 /nwato/로 되고 다시 활음이 삭제되면서 보상적 장음이 생기므로 음성형[na:do]가 도출될 수 있다. 만약 완전순행동화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하면 음성형 [no:do]가 되기 때문에 두 지역어에서 나타나

10) 왜냐하면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ko, ·tɬa’와 결합하면 [nok^ho], [not^hɬa]가 되기 때문이다.

는 음성형과는 합치되지 않는다.

(2. f)는 어간말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그 중에서 음성형 [pa:do]의 도출과정은 (2. e)의 어사의 음성형 [na:do]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즉 이 어사의 어간은 /po-/이며, 두 지역어에서 어간모음 /a/가 설측음으로 기능한다는 의미이다.

(2. g)는 먼저 (가) 지역어부터 보자. 이들 어사들은 어간의 기저형이 각각 /s'o-/와 /k'o-/이다.(s'ogo, s'odəra, k'ogo, k'odəra). 이 지역어에서 실현되는 음성형 [s'a:do]와 [k'a:do]는 (2. e)의 어사 '놓아도'와 (2. f)의 어사 '보아도'와 동일한 음운과정을 거쳐서 도출된다. 그러니까 어간모음 /a/가 설측음으로 기능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나) 지역어에 나오는 음성형 중에서 '쏘아도'의 경우를 보자. 이 어사는 음성형이 [sa:do]와 [so:do]로 실현된다. 전자의 경우는 (2. f)의 어사 '보아도'와 같고, 후자의 경우가 문제이다. 이 경우는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는데 구체적 입장에 입각해서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ko, -tɕla)와 결합할 때는 /s'u-/이고(s'ugo)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ato, asɔ)와 결합할 때는 /s'o-/이다. 그래서 어간의 기저형이 /s'o-/로 설정되고 어미 /ɔ/와 결합한 것으로 본다. 즉 (나) 지역어의 음성형의 도출은 완전순행동화를 경험하여 나타난다. 그런데 어미 /a/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도 음성형의 도출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어미 /ɔ/와 결합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적어도 (나) 지역어의 다른 어사들에서 어간말모음이 /o/인 경우 대체로 어미 /a/를 취하기 때문이다.

결국, (2)에서 (가) 지역어의 어간모음 /a/는 설측음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나) 지역어에서는 어간말음절의 구조에 따라 어간모음 /a/의 기능이 달리 실현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h-변칙'인 경우와 어간 말음절이 /h/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간모음 /a/가 설측음으로 기능하고 이 외의 경우에는 설소측음으로 기능함을 볼 수 있다.

3.3. 어간말모음이 /ə/인 경우¹¹⁾

	(가) 지역어	(나) 지역어	
(3. a)	ərədo	ɛrədo	‘얼어도’
	nəmədo	nɛmɛdo	‘넘어도’
	s'ək'ədo	sɛk'ɛdo	‘섞어도’
	pəsədo	pɛsɛdo	‘벗어도’
	ədədo	ɛdɛdo	‘얻어도’
	s'əgədo	sɛgɛdo	‘씩어도’
	əbədo	ɛbɛdo	‘업어도’
b.	təwədo	tɛbɛdo	‘땀어도’
c.	sədo	sɛdo	‘서어도’
d.	mugəwədo	mugɛbɛdo	‘무겁어도’
	musəwədo	musɛbɛdo	‘무섭어도’

(3. a~3. c)는 어간이 1음절로 이루어진 어간이다. (3. a)는 어간말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어간모음 /ə/[(가)지역어] 혹은 /ɛ/[(나)지역어]는 설소축음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두 지역어 모두 어미 /ə/ 혹은 /ɛ/를 취하고 있다. (3. b)의 어사에 있어서 (가) 지역어는 ‘ㅁ-변칙’이고 (나) 지역어는 ‘ㅁ-정칙’이라는 사실만 다를 뿐 어간모음 /ə/의 기능 및 어미를 취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은 (3. a)와 동일한 궤도에 놓는다. (3. c)는 어간말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이 어사도 어간모음 /ə/가 설소축음으로 기능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두 지역어 모두 설소축음을 어미로 취한다. 음성형 [sədo] 혹은 [sɛdo]는 동음삭제규칙에 의해서 도출된다. 만약 설축음을 어미로 취한다면 (3. c)와 같은 음성형이 도출될 수 없다.

(3. d)는 2음절 이상으로 된 어간이다. (3. d)에서 (가) 지역어는 ‘ㅁ-변칙’이고 (나) 지역어는 ‘ㅁ-정칙’이라는 사실이 다를 뿐이지 어간모음 /ə/[(가)지역어] 혹은 /ɛ/[(나)지역어]가 설소축음으로 기능한다는 것

11) 양동지역어에서는 /ə/와 /ɛ/가 중화되어 기저형을 /ɛ/로 설정한다.

에는 1음절로 된 어간과 동일하다. 그래서 어미를 취하는 것도 (3. a~3. c)와 동례로 처리된다.

결국, (3)은 어간의 음절수 그리고 어간말음절의 구조에 관계없이 두 지역어 모두 어간모음이 설소축음으로 기능하며 거기에 따라서 어미 /ə/ [(가)지역어] 혹은 /ɔ/ [(나)지역어]를 취한다.

3.4. 어간말 모음이 /u/인 경우

	(가) 지역어	(나) 지역어	
(4) a.	urədo	urɔdo	‘울어도’
	sumədo	sumɔdo	‘숨어도’
	mudədo	mudɔdo	‘묻어도’
	purədo	purɔdo	‘불어도’
	cugədo	cugɔdo	‘죽어도’
	kulmədo	kulmɔdo	‘끓어도’
	curədo	curɔdo	‘줄어도’
b.	c ^h uwədo	c ^h ubɔdo	‘츄어도’
c.	murədo	murɔdo	‘물어도’
	nurədo	nurɔdo	‘눌어도’
d.	co:do	co:do	‘주어도’
	no:do	no:do	‘누어도’
e.	k ^h ia(wa)do	k ^h iwado	‘키워도’
	s ^h awado	sawado	‘싸워도’
	pEa(wa)do	pEwado	‘배워도’
f.	kamurədo	kamurɔdo	‘가물어도’
	capurədo	capurɔdo	‘자불어도’
	k ^h aburədo	k ^h aburɔdo	‘까불어도’
g	pak ^h a:do	pak ^h a:do	‘바꾸어도’
	mac ^h a:do	mac ^h a:do	‘마추어도’
	kada:do	kada:do	‘가두어도’
	kəta:do	kɔta:do	‘거두어도’

(4. a~4. d)는 어간이 1음절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4. a)는 어간말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두 지역어 모두 /ə/[(가)지역어] 혹은 /ɔ/

/[(나)지역어]를 어미로 취하는 것으로 보아 어간모음 /u/는 설소축음으로 기능한다. (4. b)인 경우 (가) 지역어는 ‘ㅁ-변칙’이고 (나) 지역어는 ‘ㅁ-정칙’이라는 현상이 다를 뿐이지 어간모음 /u/의 기능에 의한 조화양상은 (4. a)와 동등로 볼 수 있다. (4. c)는 두 지역어 모두 소위 ‘ㄷ-변칙’이라고 불리는 어사들인데, 구체음운론에 입각해서 어간의 재구조화를 유도한다. 무언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ato, -asə)와 결합할 때는 어간의 기저형이 /mu1-/과 /nu1-/이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ko, -tala)와 결합할 때는 어간의 기저형이 /mut-/과 /nut-/이다.(mutk'o, nutk'o), 그래서 (4. c)도 어간모음의 기능을 (4. a)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또한 (4. d)는 어간말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두 지역어 모두 음성형을 보고서는 어간모음의 기능을 고찰할 수 없다. 그래서 기저형에서 음성형까지 도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간모음의 기능을 살펴보자. 그것은 기저형의 차이에 의한 처리방법으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누어도’의 경우를 보자. 하나의 해석방법은 기저형을 /nu-/로 설정해서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ko, -tala)와 결합하면 [nugo], [nud3gra]가 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ato, -asə)와 결합하면 환음형성(wə:) 하면서 보상적 장모음을 가지고 그 다음 wə→o:로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해석방법은 기저형의 설정에 있어서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어간의 교체형을 제시하여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면 /nu-/가 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면 /no-/가 된다. 그래서 완전순행동화 규칙만으로 음성형이 도출된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해석방법 중 잠정적으로 전자를 선택한다.¹²⁾ 전자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어미는 /ə/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간모음 /u/는 설소축

12) ‘잠정적’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두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환음화 과정과 연관지어 고려할 때 전자의 선택 방법에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후일로 미룬다.

음으로 기능하게 된다.

(4. e~4. g)는 2음절 이상인 어간들이다. (4. e)는 어간말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두 지역어 모두 어간모음 /u/는 설축음으로 기능한다. 한편 (4. e)의 어사는 (가)지역어에서는 음성형에 활음이 형성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한다. 즉 수의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나)지역어에서는 음성형에 활음이 형성된 상태로 남아있다. (4. f)는 어간말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두 지역어 모두 (4. a)와 동일하게 어간모음 /u/가 설소축 자질을 가진 어미 /ə/[(가)지역어] 혹은 /ɔ/[(나)지역어]와 결합하므로 설소축음으로 기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4. g)는 어간말음절이 /h/로 끝나는 어사들이다. 두 지역어 모두 이 어사들의 기저형은 각각 /pak'uh-/ , /mac^huh-/ , /katuh-/ , 그리고 /katuh-/이다. 이 어사들의 기저형이 어미 /a/와 결합하여야만 활음 /w/를 형성하고 난 뒤 활음삭제를 경험하여 (4. g)의 음성형이 도출된다. 그래서 이 경우 어간모음 /u/는 설축음으로 기능하게 된다.

결국 (4)는 1음절인 경우 어간말음절의 구조에 관계없이 두 지역어 모두 어간모음 /u/가 설소축음으로 기능한다. 그런데 2음절 이상인 경우 어간말음절의 구조에 따라 양상이 달리 실현된다. 부연하면 어간말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후음 /h/로 끝나면 어간모음 /u/가 설축음으로 기능하고, 자음으로 끝나면 설소축음으로 기능한다.

3.5. 어간말 모음이 /ɨ/인 경우

	(가) 지역어	(나) 지역어	
(5) a.	nɨcədo	nɛcədo	'눅어도'
	tɨrədo	tɛrədo	'틀어도'
	nɨlgədo	nɛlgədo	'늑어도'
b.	k'ədo	k'ədo	'꼬어도'
	s'ədo	sədo	'쓰어도'
	k ^h ədo	k ^h ədo	'크어도'

c.	təd+mədo	tədəmədɔ	‘터듬어도’
	kan+rədo	kanərədɔ	‘가늘어도’
	t’ad+mədo	t’adəmədɔ	‘다듬어도’
	mand+rədo	mandərədɔ	‘만들어도’
d.	ollado	ollado	‘오르어도’
	mollado	mollado	‘모르어도’
	h+llado	həllədɔ	‘호르어도’
	pullədo	pullədɔ	‘쁘르어도’

(5. a~5. b)는 1음절로 된 어간들이다. (5. a)는 어간말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가)지역어의 어간모음 /ɬ/와 (나)지역어에서 중화되어 나타난 어간모음 /ɛ/모두가 설소축음으로 기능하고 있다. (5. b)는 어간말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 상의 차이로 인하여 음성형의 도출과정을 달리보아야 한다. 먼저 (가)지역어는 7모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ɬ/삭제에 의하여 음성형이 나온다. 여기에서 /ɬ/삭제로 인하여 (5. b)의 음성형이 나오게 하려면 자연히 어미를 /ə/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나)지역어는 6모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어간모음이 중화된 /ɔ/이며 어미 /ɔ/와 결합하여야만 동음삭제를 거쳐서 (5. b)의 음성형이 실현된다. 다시 말해서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는 차이가 있지만 어간모음이 설소축 자질을 지닌 어미를 선택한다는 것에는 동일하다.

한편 (5. c~5. d)는 2음절 이상으로 된 어간이다. 먼저 (5. c)는 어간말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두 지역어 모두 어간모음이 설소축 자질을 지닌 어미 /ə/[(가)지역어] 혹은 /ɔ/[(나)지역어]를 취하는 것으로 보아 설소축음으로 기능한다. 다음으로 (5. d)는 소위 ‘l+뱀칙’이라고 불리는 어사들이다. 공식적 입장에서 볼 때 두 지역어 모두 어간의 재구조화에 의해서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ko, -təla)와 결합할 때는 /l+ /이고(oll+go, mol+go)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ato, -asə)와 결합할 때는 /ll+ /이다.¹³⁾ 그런데 (5. d)의 어간말모음 /ɬ/[(가)

지역어] 혹은 /ɔ/[(나)지역어]는 설축음으로도 기능하고 설소축음으로도 기능하는 이른바 설불축음으로 기능하고 있다. 부연하면 어간모음 /ɛ/ 혹은 /ɔ/가 어미모음 /a/ 혹은 /ə/를 선택하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 앞의 어간모음이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면 어미모음의 선택에 따라 /o/는 설축음으로 기능하고 /ɛ/와 /u/는 설소축음으로 각각 기능한다.

결국 (5)는 어간모음이 1음절인 경우 두 지역어 모두 설소축 자질을 지닌 /ə/를 취하는 것으로 보아 어간모음 /ɛ/ 혹은 /ɔ/가 설소축음으로 기능한다. 2음절 이상인 경우 두 지역어 모두 어간모음 /ɛ/ 혹은 /ɔ/가 설불축음으로 기능한다.

3.6. 어간말 모음이 /i/인 경우

	(가) 지역어	(나) 지역어	
(3) a.	igədo	igɛdo	‘익어도’
	sinədo	sinɛdo	‘신어도’
	ibədo	ibɛdo	‘입어도’
	pʰisədo	pʰisɛdo	‘뺏어도’
	midədo	midɛdo	‘맡어도’
	cirədo	cirɛdo	‘질어도’
	kirədo	kirɛdo	‘길어도’
b.	jədo	jɛdo	‘이어도’(戴)
c.	cədo	cɛdo	‘지어도’
	cʰədo	cʰɛdo	‘치어도’
d.	ki:do	ki:do	‘기어도’
	pʰi:do	pʰi:do	‘파어도’
	pi:do	pi:do	‘비어도’

- 13) (나)지역어에서는 (5, d)의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기저형이 /li/로 되기도 하는 수의성을 나타내고 있다.(olligo, morigo...).

e.	kjəndido	kjədido	‘견디어도’
	masido	masido	‘마시어도’
	kidarido	kidarido	‘기다리어도’
	igido	igido	‘dlrldjeh’
f.	t’əncədo	t’əncədo	‘편지어도’
	kəncədo	kəncədo	‘잔지어도’
	muc ^h ədo	muc ^h ədo	‘무치어도’

(5. a~5. d)는 1음절로 이루어진 어간이다. (5. a)는 어간말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어간모음 /i/는 설소축음으로 기능한다. (5. b)는 어간모음 앞에 자음이 없는 경우인데 어간모음 /i/가 설소축 자질을 지닌 어미 /ə/를 취하는 것으로 보아 설소축음으로 기능한다. (5. b)의 음성형도출과정을 통해서 검토해 보자. 어간의 기지형 /i/에 어미 /ə/가 결합하면서 환음 /j/가 형성되고 난 다음 /j/가 탈락하지 않고 음성형에 나타난다. 만약 어미 /ə/가 결합한다고 가정하면 완전순행동화 규칙이 적용되어 음성형에 장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5. b)의 음성형과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어미 /ə/가 결합되어야 한다. (5. c)는 어간모음 /i/앞에 치찰음이 오는 경우인데 (5. c)의 어간모음 /i/도 설소축음으로 기능한다. (5. b)와 마찬가지로 음성형의 도출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5. c)의 음성형 도출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간의 단일형에서 환음형성, 환음삭제의 과정을 거쳐서 음성형을 도출해 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어간의 교체형을 제시하여 동음삭제 규칙만으로 음성형을 도출해 내는 방법이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지 관계없이 어간모음 /i/는 어미 /ə/를 요구한다. (5. d)는 어간모음 /i/앞에 치찰음이 아닌 선행자음이 오는 경우인데 음성형의 장음이 실현되고 있다. 이것의 도출과정을 통해서 어간모음 /i/의 자질기능을 보자. 음성형의 도출과정은 어미모음 /ə/가 어간모음 /i/에 완전순행 동화하여 (5. d)의 음성형이 실현된다. 물론 이 때 어미모음을 /ə/로 설정해도 음성형의 도출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5. a~5. c)의 경우로 보아서 어미모음

을 /a/로 설정한다.¹⁴⁾

(5. e~5. f)는 2음절 이상으로 된 어간이다. (5. e)는 어간모음 /i/가 설소축음으로 기능한다. (5. e)의 음성형 도출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자 한다. 어간모음 /i/에 어미모음 /a/가 결합하면 완전순행 동화에 의해서 음성형이 나온다. 음성형에 장음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앞의 (1. b)의 어사 중 음성형 [hEEdo]를 도출하면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5. e)의 어사에 어미모음 /a/가 설정되는 외적증거를 들면 월성군에서 양동지역어를 제외한 월성지역어에서 (5. e)와 동일한 환경에서 음성형 [kjəndEdo], [masEdo], [kidarEdo], [igEdo]이 실현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음성형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환음형성, 모음축약(jɔ→e)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모음축약에서 짐작해 낼 수 있다. 그래서 어간모음 /i/가 어미 /a/를 취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설소축음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5. f)는 (5. c)와 비교해서 음절수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환경이며, 어간모음 /i/도 (5. c)와 동일한 궤도로 보아 설소축음으로 기능한다.

결과 (5)는 두 지역어 모두 어간말모음 /i/가 어간음절수와 어간말구조에 관계없이 설소축자질을 지닌 어미 /a/를 취하는 설소축음으로 기능한다.

4. 결 론

본고는 용언의 어간과 부사형어미 ‘아’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에 한정해서 고찰하면서, 어간이 부사형어미 ‘아’의 교체에서 어떤 조화기능을 수행하는가도 보고자 한다. 그리고 어간모음의 자질은舌根에 의한

14) (5. d)의 어간모음에 환음형성, 단모음화, 고모음화 등의 음운현상을 적용하면 좀 더 분명히 어미 /a/를 선택해야 하는 근거가 나오지만 너무 인위적이고 무리한 것이라 생각된다.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 논의된 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어간모음이 /a/인 경우, (가)지역어의 1음절에서는 어간모음이 舌縮音으로 기능하고 2음절 이상에서는 어간의 기능이 수의적이다. (나)지역어에서는 어간의 음절수에 관계없이 어간모음의 기능이 달리 실현된다.

(2) 어간모음이 /o/인 경우, (가)지역어에서는 어간모음이 舌縮音으로 기능하고, (나)지역어에서는 어간모음의 기능이 어간말음절의 구조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3) 어간모음이 /ə/인 경우, 어간의 음절수와 어간말음절의 구조에 관계없이 두 지역어 모두 어간모음이 설소축음으로 기능한다.

(4) 어간모음이 /u/인 경우, 두 지역어 모두 1음절인 어간모음은 어간말음절의 구조에 관계없이 舌小縮音으로 기능하며 2음절 이상인 어간모음은 어간말음절의 구조에 따라 양상이 달리 실현된다.

(5) 어간모음이 /ɨ/인 경우, 두 지역어 모두 1음절 어간모음은 舌小縮音으로 기능하고 2음절 이상인 어간모음은 舌不縮音으로 기능한다.

(6) 어간모음이 /i/인 경우, 두 지역어 모두 어간음절수와 어간말구조에 관계없이 舌小縮音으로 기능한다.

참고 논저

- 김방한(1989)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 김영기(1973) "'Irregular' verbs in korean Revisited" 어학연구 9-2.
- 김완진(1978)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14-2.
- 김주원(1988) "만주 통구스제어의 모음조화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우(1968)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3.
- 남기심 · 이정민 · 이홍배(1977) 「언어학개론」 탐 출판사.
- 박종희(1985) "모음조화의 붕괴 요인에 대하여" 자오당 김형기선생 8순기념 국어학논총.
- 소강춘(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 이기문(1971) "모음조화 이론" 어학연구 7-2.
- 이병선(1971) "경남방언에서의 모음조화현상" 국어국문학 54.
- 이시진(1991a) "활음화 현상에 대하여" 영남어문학 19집, 영남어문학회.
- 이정민 · 배영남(1987) 「언어학 사전」 박영사
- 오종갑(1984) "모음조화의 재검토" 목천 유창균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 최명옥(1976) "서남경남방언의 부사화접사 '-아'의 음운현상" 국어학 4.
- _____ (1980) 「경북 동해안 방언연구」 영남대 출판부.
- _____ (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한영균(1990) "모음조화의 붕괴와 '·'의 제1단계 변화" 국어학 20.
- Chambers & Trudgill(1980) 「Dialectology」 London : Cambridge Univ. Press.
- Chomsky, N. & Halle(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 Haper and Row.
- Kiparsky, P.(1968b) "How Abstract is Phonology" I. U. L. Club.
- Schane, S. A.(1973) 「Generative Phonolog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